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9일(금)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수산과	담 당 자	• 수산자원팀장 이의진 ☎440-4871 • 담당자 박인태 ☎440-487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서해 수산자원 조성위해 한·중 공동 치어방류

-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기념식 및 참조기 30만미 연평 방류 -
- 서해 조업질서 안정과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7월 9일(금) 인천광역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한·중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인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덩충(Deng Qiong)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 박영길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박정숙 인천시의회 의원 등 관계자 및 어업인이 참석했다.

한·중 공동 치어방류 행사는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한·중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기념행사가 끝난 뒤에는 왕산마리나항 인근에서 참조기를 기념 방류했다.

여기에 사용된 어린 물고기는 한·중 공동방류의 취지에 맞도록 양국의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서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참조

기 30만미로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부화를 해서 생산한 것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한·중 공동 어린물고기 방류행사로 서해 조업질서를 더욱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11:30분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